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2.10.16 ~ 10.20 (4박5일)
- 방 문 국 : 대만
- 연 수 단 : 13 명

의성군의회

목 차

I . 연수 개요	3
II . 연수지역 현황	7
III .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11
IV . 후기 및 소감	27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타국의 지방 자치, 노인복지 시설, 친환경 시설, 문화 관광에 대한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함.
- 의정활동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복지 분야의 우수지역을 견학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시행함.
- 세계적으로 당면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선진 우수 사례 실태에 대한 현지 벤치마킹으로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의 모색
-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 의회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원들의 미래지향적 마인드 함양

2. 연수개요

○ 연수 국가

☞ 대만

○ 연수 기간

☞ 2012. 10. 16 ~ 10. 20 (4박5일)

○ 연수 대상

☞ 13명 (의원 및 관계직원)

연번	직위	연 수 자
1	의 장	우 종 우
2	부위원장	최 영 재
3	운영위원장	정 도 진
4	산건위원장	김 영 수
5	의 원	강 신 덕
6	의 원	배 광 우
7	의 원	김 동 준
8	의 원	김 광 호
9	전문위원	박 창 기
10	직 원	권 태 형
11	직 원	이 기 훈
12	직 원	김 수 경
13	직 원	김 병 태

3. 연수일정

일자	장소	업무수행내용
제1일 10/16(화)	부산 - 타이페이	◦ 부산-대만 도착 ◦ 복해복좌보탑(납골당) 견학 ◦ 용산사, 야시장 방문
제2일 10/17(수)	타이페이 - 화련 - 타이페이	◦ 태로각 협곡 자연국립공원 - 생태계 보존 현황 ◦ 대리석 공장
제3일 10/18(목)	타이페이 - 야류 - 타이페이	◦ 조여노인안양호중심 노인복지시설 방문 -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시찰 ◦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 세계 4대 박물관 운영 현황 시찰 ◦ 대만 습지센터(관두공원) 방문 - 생태환경 보존 및 운영 현황 시찰
제4일 10/19(금)	타이페이	◦ 내호 쓰레기 소각장 방문 ◦ 베이더우 친환경 도서관 방문 ◦ 대만 주재 한국 대사관 방문 ◦ 서문정거리, 101타워 전망대 시찰
제5일 10/20(토)	타이페이 - 부산	◦ 장개석 기념 민주기념관 (중정기념당) ◦ 부산 도착

II

연수지역 현황

1. 기본 현황



- 수 도 : 타이페이
- 인 구 : 23,000,000명(2009년 기준)
- 면 적 : 35,195 km²
- 기 후 : 아열대성 해양 기후
- 주요민족 : 대만성인(84%), 대륙본토(14%), 원주민(2%)
- 언 어 : 푸통화(Mandarin / 普通話), 대만어(Taiwanese)
- 종 교 :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2. 정 치

- 1947년 1월 1일 제정되고, 2005년 6월 7일 국민대회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타이완은 입헌민주제 공화국이다. 총통이라는 이름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장이다.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5권 분립체제 상 총통이 이를 관할한다.
- 2008년 1월 12일 제7대 입법위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당 81석, 민진당 27석, 기타 5석 등이다. 2008년 3월 28일의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구(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 국제 사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승인에 따라 1971년 UN을 탈퇴하였고, 2008년 기준 23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는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한동안 집권한 천수이볜 총통의 4요1몰유(4要一沒有)노선(대만은 독립이 필요하고, 신헌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호를 고치고,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네 가지 필요성과 함께 대만 내 좌우 노선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게 되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 그러나 최근 UN 가입 문제가 대두되어 국민당은 중화민국 명의로 민진당 정부는 대만 명의로 UN 가입 국민투표 운동을 시도하였다. 병역제도는 징병제로 20세의 남자는 1년간 복무한다. 병력은 정규군 376,000명, 예비군 1,657,000명이다.

3. 경 제

-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을 보면 농업 1.7%, 광공업 25%, 서비스업 73.3%이다. 경제는 제조업·무역·서비스업에 기초한 시장 경제가 발달하였으며, 자철석·황철석·구리·금 등이 소량으로 채굴되고 장석·석회석·활석·백운석·고령토 등이 다량으로 생산된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이 생산되기는 하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료와 광물을 수입한다.
- 중공업은 1965년 수출가공지대로 건설된 가오슝[高雄]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공업은 타이페이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장비·의류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약품, 정밀 기계, 전자기기 분야의 첨단산업도 발달하였다.
- 주요 수출품은 기계·전기제품, 방직품, 금속동제품, 수입품은 기계·전기제품, 화학품, 금속동제품 등이다. 2001년 11월에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 컴퓨터, 정보통신 등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OEM 수출을 통해 세계 IT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중국(홍콩 포함)이 미국을 제치고 타이완의 제1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고, 타이완 기업들의 대중 투자 확대 및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타이완 내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4. 문 화

- 타이완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대륙문화와 태평양의 해양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문화유산이 다양하다. 중국의 한(漢)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한때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기도 했으며, 서유럽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중첩되어 있다.
- 타이완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인 중국식 건축물과 20세기 초의 일본식 건축물 및 근대 서구식 건축물 등 어떤 형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혼합양식의 건축물들이 많다. 타이난이나 루캉과 같은 타이완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중국의 건축은 유럽의 고딕식 사원이나 일본의 정원 양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건물의 기본구조가 전형적인 U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또는 2층의 건물로 처마가 매우 가파른 기와지붕의 중국 고대양식 건축물들이 지방에 산재되어 있다. 타이완에는 또 주로 청대(清代: 1644~1911)에 건축된 사원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절들이 많이 남아 있다.

1. 북해복좌보탑(납골당)

◆ 방문 목적

- 대만의 납골장묘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향후 우리군에 선진 장사 시스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만은 92년부터 추진한 국가건설 6개년 계획에 묘지문제를 포함시켜 무질서한 묘지를 정리하고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 홍보영화는 물론 신문광고, TV 홍보 등 공익광고를 통해 계도에 나섰고 90년대 말부터는 납골문화가 전체 장묘의 70%를 넘어설 정도로 일반화 되었다.
- 타이페이 시 근교에 있는 1만~2만기 규모의 납골당은 대략 10여개이다. 납골당 근처를 중심으로 가족 납골묘에서부터 시작해 종교별로 다양한 납골묘가 산재해 있는 모습이다.
- 그 중 한곳인 '북해복좌'는 이산 중턱 해발 200m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설묘지로, 앞으로는 관음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좌우로 양명산 정상과 대만해협이 내려다보이는 1급

경관 가운데 6만 4666평(21만 3400㎡) 부지에 수백평짜리 묘지들이 뻥뻥하게 들어서 있고, 멀리서 보면 묘지가 아니라 기와를 얹은 지붕과 대문, 정원수를 갖추고 있는 단독 주택들로 착각할 정도이다

- 우리나라 묘지 1기당 평균 면적은 일본의 7~20배, 미국의 10~27배나 되는 등 관혼상제와 관련된 과소비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극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묘지를 정원, 잔디, 수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생활 속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대만 납골장묘시설 견학 및 브리핑

2. 조여노인안양호중심 노인복지시설

◆ 방문 목적

- 의성군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통한 타국 복지시설의 비교·분석
- 정부 지원 형태 및 자원봉사자 운영 시스템 등 자료 수집

- 2004년 문을 연 이 시설은 대만시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 1만 5000평 규모로 치매 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양로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다.
- 신체 기능이 일부 상실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2층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경증, 중증, 최종중으로 나누어 총 118개의 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룸 실내는 천정이 높고 자신만의 생활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넓게 설계되어 있으며, 가족 방문을 위한 별도의 룸도 준비되어 있다.
- 치매센터의 경우 대만 달러로 3만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05만원을 가량을 내면 전문 간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 일부 국가보조도 가능하다. 치매센터에는 현재 간호사 5명, 보조원 5명이 직원으로 근무한다.
-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3층 양로원의 경우 우리 돈으로 보증금 약 180만원에 1인실은 월 70만원, 부

부가 사용하는 2인실은 월 100만원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편안한 노년을 위한 이른바 '실버타운'과 같은 역할이다.

- 질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넘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의 영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 조여노인안양호중심 시설 방문 및 간담회

3. 국립고궁박물관

◆ 방문 목적

-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 및 문화재 관리 등 관광 산업 벤치마킹

- 국민당 정부가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 섬으로 이동할 때에 대륙에서 가져온 문화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5,000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집합체로서 신석기 시대의 출토품에서부터 중국 역대 왕조의 보물 등 세계적으로 가치가 인정된 문물이 70만점 가량 소장되어 있어 세계 4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 일반에게 전시 공개되고 있는 것은 약 12,000점 정도이며 3~6개월마다 교체하여 전시한다. 35개의 전시실에는 조각, 집기, 자기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곳곳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된 해설집이 놓여있다. 이 곳 역시 해외여행객을 위한 자국어 설명 이어폰을 대여하여 주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우리군 역시 지역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유물 등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국립고궁박물관 견학

4. 대만습지센터(관두공원) 방문

◆ 방문 목적

- 생태환경 보존 현황 및 운영 실태 시찰과 자료 수집

○ 관두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공원으로 타이페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 9월 자연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 전체 면적은 165,000평 정도로 생태공원으로서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되고 있었다.

○ 165,000평의 부지는 지주들로부터 시에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공원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운영 기구는 없고, 시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 자원봉사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보호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임금 등 보상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2001년 방문객을 위한 자연센터를 조성하고, 탐조대를 설치하였으며 강과, 바다로 2개 구역(핵심보호구역, 야외탐방구역)으로 나눠 생태관리를 한다.
- 공원 시설
 - 중앙센터, 다양한 형태의 인공, 자연 습지, 실내 교육센터, 극장 탐조대, 레스토랑, 기념품 샵
- 교육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 방문하는 대상과 연령대에 따른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주 1회의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대학생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공원을 가장 많이 찾는 이들은 유치원·초등학생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와 미래의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부류의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점은 우리 군에도 필요한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 대만습지센터(관두자연공원) 견학

5. 내호 쓰레기 소각장

◆ 방문 목적

- 쓰레기 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자료 수집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국은 1987년 타이베이시 내호 소각장을 시작으로 총 26개의 대형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24개의 대형 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 대만 최대 규모의 내호 소각장은 1987년 일본과의 기술제휴로 설치되었으며, 대북시 내호구 호주리 안강로에 위치하고 있다.
- 소각장은 6000Kw 가량의 여열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발전으로 소각장의 동력을 자급자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수풀도 운영하고 있음. 이 소각장 폐수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탈수한 다음 매립지로 보내져 매립 처분한다.
- 대만의 소각장은 정부에서 설치한 대형화 설비를 활용해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운영경비를 절감하며, 주변 주민도 소각장에 대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여기는 상황이다.
- 또한 소각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활용해 소각장 주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 이처럼 대만 정부는 지역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각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시설을 무료 개방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각장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의 반감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 이외에도 대만의 소각장은 모든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민

에게 공개하도록 해 지역 주민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도 소각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에 대한 염려 등으로 소각장 설립계획 발표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아직은 거센 편이다. 대만의 경험에서도 보듯이 소각장을 다른 산업과 연계해 레저산업을 추진하거나, 휴양지로 개발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내호 쓰레기 소각 처리 시설 견학

6. 베이더우 친환경 도서관

◆ 방문 목적

- 친환경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우리군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료 수집

- 친환경 건축물인 베이더우 도서관은 생태 환경이 풍부한 베이더우 공원 안에 위치하며, 친환경 건축물 9대 지표 후보 증서를 수여받았다.
- 전체 건물은 자연 햇빛을 되도록 많이 이용토록 지어진 모습이었으며, 목재 위주에 철근을 곁들여 대형 원두막 같은 외관이 매우 친숙한 느낌을 준다.
- 도서관 지붕은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한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한낮의 햇볕으로 16,000와트의 전력을 축적할 수 있으며, 베란다의 난간도 수직의 나무 격자 설계로 실내로 들어오는 복사선을 방지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지붕 위에 심은 잔디는 특수 배수 설계로 자연의 수분을 재활용해 식물에 물을 주고 화장실에서도 사용한다.
-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인상 깊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중 및 친환경 소재

를 이용한 점 등 환경에 대한 노력은 우리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우리군도 반드시 도서관이 아닐지라도 친환경 공간을 구성하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베이터우 친환경 도서관 방문

7.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

◆ 방문 목적

-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의 외교적 역할 및 교민 현황 등을 알아보고 국제적 시각을 넓히고자 함.

- 1992년 8월 24일 대만과 한국의 국교 단절 이듬해인 1993년에 타이베이에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가 설립되어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교민 지원 업무 등 비공식적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 대표부는 공식적인 외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의 치외법권이나 면책 특권 등은 받지 못한다고 한다.
- 대만(중화민국 정부)의 공식 수교국은 23개, 유럽의 바티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남태평양, 카리브해, 아프리카의 소국들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및 대다수의 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한 후 통칭 ‘대표부’라 하는 형식상 민간 기구로 종전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의 명칭도 각양각색이라 00협회, 00사무처, 00경제문화대표부 등을 사용하고 있다.
- 2011년 양국 교역 규모는 329억 달러(약 37조원)이다. 대만은 한국의 6대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대만의 4대 교

역 대상국이다. 경제 부문에선 이미 중요한 협력 상대가 된 셈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 역시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하는 등 인적 교류도 늘고 있다고 한다.



▲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 방문 및 정상기 대사와의 브리핑/질의응답 시간

8. 장개석 민주기념관 (중정기념당)

◆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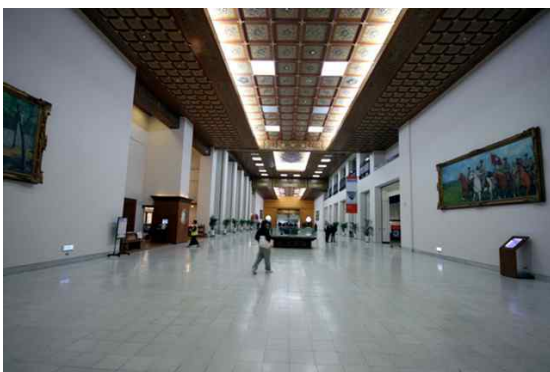
- 대만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 파악

- 중정기념관은 중화민국 초대 총통인 장개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1975년 서거후 다음해 행정원에서 중정기념관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설계자는 원산호텔의 설계자인 양택성 선생이다. 남색과 흰색을 주요 색조로 하고 천장은 하늘을 향해 둥글게 하여 국민당의 당휘장으로 장식하였고 동상은 서쪽으로 총통부와 중국대륙을 향하게 하여 특수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민주사상의 개방으로 인해 기념당 앞의 광장은 매년 민주화 운동의 집회장으로도 쓰였다.
- 타이페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소로 대만의 영웅 장개석을 위한 기념물이다. 그림같이 조경이 잘 된 광대한 정원 위에 거대한 대리석 건물인 기념관이 서있고, 우아한 정자, 연못 등이 배치되어 있다. 25톤의 장개석 총통 동상이 본관에서 시내를 바라보고 있으며, 1층 전시실에는 사진과 총통의 생애에 관한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 기념당의 높이는 70m이며, 중화 문화의 품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외부는 청색과 흰색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색들은 자유와 평등을 상징한다. 우아한 명나라식의 아치가 정문이며 양측에 두 개의 고전적 건물이 있는데 각각 국립극장과 콘서트 홀이다. 광장에는 매일 아침 5시경부터 태극권, 포크 댄스, 배드민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한다.

○ 기념관인 동시에 조경을 잘 꾸며놓는 등 도심 속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시간을 들여 별도로 찾아야 하는 국내의 박물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다.

○ 우리군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 유산 관리에 있어 공원 조성 및 PC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실 구성 등 주민들이 시간이 날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 장개석 기념 민주기념당 방문

-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대만의 다양한 도시 운영실태를 연구하고, 발전상을 몸소 체험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까지 (4박 5일 간) 국외연수를 실시하였다.
- 이번 연수는 의성군의회 의원들이 타국의 지방자치(의회)제도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 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 내용과 체험에 충실한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방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방문지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 도시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시설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쓰레기 소각장, 효율적 묘지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납골묘 시설 등을 방문하였으며, 비교 체험한 다양한 도시 운영 정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만 관광 사업의 경우 주 고객이 중국인, 한국인 순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중국인들이 관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 관광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부분이
었다.

- 또한 대만의 복지시설을 둘러보며, 우리 군에서의 복지 정책 수립에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단지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소 개념이 아닌 노년의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실버타운’ 개념의 노인보호시설은 향후 우리 군을 이끌어갈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 끝으로, 우리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타산지석이란 말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우리 지역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